

프레드니솔론과 타목시펜으로 호전된 경화성 피막성 복막염 3례

충남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

정지윤 · 장원익 · 김의식 · 김난희 · 정사라 · 최대은 · 나기량 · 이강욱 · 신영태

Prednisolone and Tamoxifen Therapy in Sclerosing Encapsulating Peritonitis 3 Case

Ji Yoon Jung, Won Ik Jang, Eui Sik Kim, Nan Hee Kim, Sarah Chung
Dae Eun Choi, Ki Ryang Na, Kang Wook Lee and Young-Tai Sh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서론 : Sclerosing encapsulating peritonitis (SEP)는 장기간 복막 투석을 시행중인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지만 그 빈도는 흔하지 않다. Sclerosing peritonitis란 장막이 점점 섬유화 되면서 초여과능을 감소시키고 장의 운동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심한 경우에는 소장이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진 낭에 둘러싸여서 SEP가 된다. 이것의 발생요인에는 복막투석의 기간, 그리고 이전에 복막염을 앓았던 횡수 등이 연관이 있으며 이 질환의 초기 임상증상으로는 비특이적인 복통, 체중감소, 투석액이 bloody해지는 것 등이 있으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장 폐색이나 장폐 누공 등도 올 수 있다. 저자들은 Prednisolone (PD)과 tamoxifen으로 호전된 3례의 SEP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 환자는 60세 여자, 32세 남자, 50세 남자였다. 복막투석기간은 각각 168개월, 13개월, 65개월, 복막염의 총 횡수는 각각 6회 (no growth: 4회, *S. epidemidis*: 2회), 3회 (no growth: 3회), 3회 (no growth: 1회, *Methicilline sensitive S. aureus*: 1회, *Methicilline resistant*: 1회) 이었다. SEP의 진단방법으로는 세 환자 모두에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으며, 첫 번째, 세 번째 환자에서는 복강경적 복막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세 환자 모두에서 복막의 비후와 조영증강, 석회화, loculated fluid collection의 소견이 보였다. 첫 번째 환자는 복강경 검사상 복강내 유착과 septation이 있었으며 조직검사상 fibrinoid degeneration을 동반한 fat necrosis, necrotizing inflammation을 보였다. 세 번째 환자에서도 복강경 소견은 유사하였으며 조직검사상 dystrophic calcification과 만성염증성 변화를 보였다. 치료약물은 세 환자 모두에서 PD와 tamoxifen을 사용하였으며 첫 번째 환자와 세 번째 환자는 PD 1 mg/kg/day, tamoxifen 20 mg/day을 복용하였으며 2번째 환자는 PD 0.5 mg/kg/day, tamoxifen 20 mg/day을 복용하였다. 세 환자 모두 약물 복용 2일 쯤부터 복통의 호전을 보였으며 첫 번째, 두 번째 환자는 현재 위장관 증상 및 증후는 없는 상태로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세 번째 환자는 PD와 tamoxifen 복용 15일째 이며 복통은 호전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구섭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 환자 모두 복막카테터는 제거하였으며 현재 유지혈액투석을 하고 있다.

Key Words : 경화성 피막성 복막염, 프레드니솔론, 타목시펜

Sclerosing encapsulating peritonitis, prednisolone, Tamoxifen